

1. 조선전기 순천의 상황

군현제 개편작업과 왜구의 침략으로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전 지역에 걸쳐 인구이동이 일어났다. 특히 해안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했다. 이 기간에 그 근거지를 바꾼 지역 토호세력들도 많이 나타났다. 이들의 이동은 대부분 중앙을 거쳐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로를 거쳤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관직의 획득과 통혼이었다. 즉 관직을 얻음으로써 중앙에 진출한 후 주로 처변(妻邊) 또는 외척의 상속재산을 따라 주거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순천에는 순천 김씨(金氏), 순천 박씨(朴氏), 순천 장씨(張氏) 등이 토호세력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묘가 거의 경기도 일대에 위치한 점은 이러한 추세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 순천으로 입향해온 새로운 세력도 결국은 앞서 언급한 경로를 따라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성씨의 교체가 아니었다. 기존의 세력들과는 달리 외래한 세력들은 '사림'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전자가 토성세력이면서도 주로 중앙에 진출하여 살던 반면 후자는 바로 순천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한 것이다.